

한국의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개선 방안 연구 -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

이수자
(전남대학교)

《목 차》

1. 들어가기
2. 상호문화교육
 - 2.1. 상호문화교육의 정의
 - 2.2.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3. 한국 중도입국자녀 교육 지원 현황
 - 3.1. 중도입국자녀 현황
 - 3.2.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지원 현황
 - 3.3.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지원 문제점
4.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개선 방안 제언
 - 4.1. 다중언어학습 기회 제공으로
 - 4.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형 주체자로
 - 4.3. 교육기관을 상호문화적 만남의 장으로
5. 나가기

<Abstract>

Rhie, Soo-ja. 2021. 1. 17.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immigrant children in Korea -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07, 99-12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immigrant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educ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it. Although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since the 2000s, it is true that it still faces many challenges. This study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immigrant children through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education, and developed in a way to organiz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cultural education and proceeded in a way that specifically reviews the status and problems of educational support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education, it was possible to propose multilingual education for all, including immigrant childre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participation in the curriculum, and improv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s a site for intercultural dialo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immigrant children, immigrant youth, inter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1. 들어가기

한국 사회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 학생의 2.5%인 13만 명을 넘는다(교육부 2019: 2).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¹⁾ 중도입국자녀²⁾란 일반적으로 부모가

1) 2020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외국인학생의 수는 2019년 대비 약 22% 증가하여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2020, p.4 참조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나 재혼 이후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중 부모가 이주한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를 의미한다.³⁾ 이들 중도입국자녀는 본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본국의 언어 및 문화적 정체성을 상당 부분 형성한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를 경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이 더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국에서 온 어느 중도입국자녀가 학교에 중국 학생이 이미 많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학교에서는 중국 학생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다는 기사는 현재 이들이 마주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⁴⁾ 학교에 진학한다 해도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모두 아우르는 프로그램 가운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은 여전히 아쉬운 실정이다.⁵⁾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증가하는 중도입국자녀가 교육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2019: 131) 청소년이 이주민의 일방적 한국 동화, 출

2)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의는 부처별로 약간씩 상이하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외국성장자녀’, ‘중도입국청소년’, 교육부에서는 ‘중도입국학생’, 법무부에서는 ‘중도입국자녀’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아우르는 ‘중도입국자녀’로 통일되게 사용을 밝힌다.

3) 이 외에도 근로, 혹은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무연고 외국인 청소년(난민)과 제3국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 등도 중도입국자녀의 범주에 포함된다. OM이민정책연구원, 2013, p.9 참조

4) “입학 거절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경향신문 기사, 2019-10-2, ‘학교밖 떠돌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도 챙겨야’, 중앙일보 기사 2019-11-12, 참조

5) 교육부의 2020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따르면 증가하는 중도입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화된 지원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교육 진입제도 개선’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학생 모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0 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 참조

신국에 따른 차별적 평가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원론적 지식의 단계를 넘어 이주민과 선주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한 실질적인 다문화수용성 교육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배경에서 중도입국자녀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전경숙(2014), 정혜숙 외(2016), 양계민(2016)의 연구는 다문화가족 자녀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이들의 교육적,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중도입국자녀의 현황을 조사한 조혜영 외(2012), 배상률(2016), 이승미 외(2017), 신윤정 외(2018), 신동윤 외(2019)는 실질적인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춘 자료들이다. 중도입국자녀가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적응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최대희(2014), 김효정·조규필(2018), 김민수(2019)는 이들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의 문제를 더욱 섬세하게 배려하고 포용하는 다문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사회 적응 역량을 높여주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하여 비판적 검토를 한 연구들도 있다. 이명희 외(2017), 이춘향 외(2018), 김소형 외(2018), 권순희(2020), 김소형(2020)는 한국어교육 관련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보다 개선된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들의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은 특정 문화 중심의 인식을 바꾸고 평등한 시각에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영근(2007), 정영근·한영란(2006), 장한업(2009, 2014), 김상무(2010)는 상호문화교육을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문화 다양성과 그 상호작용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이 모두의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2019)은 다문화교육 기본지원계획에서 기존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관점으로 상호문화교육을 도입을 명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중도입국자녀와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이 활발하지만,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교육적 지원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의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이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상호문화교육의 정의와 목표를 정리하면서 상호문화교육의 특징을 검토한다. 이어서 한국 중도입국자녀의 교육 지원 현황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정리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의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교육과 한국의 중도입국자녀 관련 문헌을 심층 분석하였다. 국내 중도입국자녀의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학술조사 자료집과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연구 자료의 분석 등 문헌 연구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2. 상호문화교육

2.1. 상호문화교육의 정의

상호문화교육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민 배경 학생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일종의 ‘특수교육’ 이었다. 이 교육이 이민 배경 학생들을 범주화하고 소외감만 가중한다는 비판 속에서 상호문화교육은 70년대 후반에 모든 학생에게 문화 다양성을 가르치는 ‘일반교육’ 으로 발전했다(장한업 2016: 36). UNESCO는 상호

문화교육을 소극적인 공존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집단들 간의 이해, 존중, 대화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할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UNESCO 2006: 18). 다문화교육이 서로 다른 문화의 소극적인 인정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차이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은 차이를 단지 ‘관용’ 하는 차원을 넘어서 ‘존중’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창조와 풍요로움의 원천이라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해 온 것이다(장한업 2018: 284). 이런 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 간의 만남을 전제로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문화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모두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는 맥락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사회통합을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두 개념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문화들이 서로 만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얼마나 주요하게 받아들이는지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최대회 2016: 61-62). 그러므로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문화적 사고, 관점, 태도 등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다(김상무 2010: 78).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은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선부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며 협의를 끌어내는 과정, 즉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해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실천적인 교육이다. 이런 상호문화교육은 그 대상자를 이주민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대면하는 상황은 모두의 일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2.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UNESCO는 상호문화교육 가이드라인(UNESCO 2006: 33-37)에서 교육의 원칙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여 각자에게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사회생활에 적극적이고 온전히 참여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지식·태도·능력을 신장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상호문화교육은 모든 학습자에게 개인·민족·집단·사회집단·문화집단·종교집단·국민들 간의 존중·이해·연대에 필요한 문화적 지식·태도·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에서는 열려있는 마음, 나와 다른 타자성에 대한 인정, 선입견 성찰, 탈중심화 등의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Auernheimer 2012: 125). 상호문화가 이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살림으로써 서서히 구성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상호문화교육의 핵심은 서로 간의 소통이다(김선미 외 2013: 90).

이런 배경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에는 다양한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의 향상이 포함된다. 언어다양성은 주류/비주류의 위계적 관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주요한 학습 주제가 된다. 교육의 방법에서도 자신의 문화에 대한 성찰로부터 타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 나아가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체계적 과정으로, 능동적 학습, 토론, 집단 활동과 같은 활동 중심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장한업 2017: 217).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역량과 연관지어 그 목표를 정리할 수 있다. 상호문화역량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할 수 있고 성공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한다. 유럽의회의 <문화간 대화에 관한 백서>에 따르면 상호문화역량은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어야 하고 실천적으로 경험되어

야 하며 인생 전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2008: 16). 이처럼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접근을 지식 이해의 수준을 넘어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 측정의 어려움⁶⁾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찰, 관점의 심화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 중도입국자녀 교육 지원 현황

3.1. 중도입국자녀 현황

한국에서 중도입국자녀의 개념은 부모와 본인의 한국 국적 여부와 관련이 있고, 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에게 해당하여 정책 지원의 대상자로 그 범주를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다.⁷⁾ 중도입국자녀의 규모는 조사 기관이나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9년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⁸⁾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 외국에

6) 장한업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에서 가장 발전되지 않은 영역으로 사정과 평가를 들면서 객관적인 상호문화역량 측정을 위한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장한업,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지침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2017, p.217-218 참조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않으면 ‘결혼이민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미등록이주자인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다문화학생 중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수는 2014년도 10,308명에서 2018

서 주로 성장한 자녀 집단, 즉 중도입국자녀의 42.9%가 18세 이상이라는 점이다.⁹⁾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초기 적응과정에서의 어려움은 평균적인 학교로의 편·입학 소요 기간이 1년 내외라는 조사 결과(전경숙 2014: 3)에서 알 수 있다. 또한 학교 입학 후에도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딩징야·진미정 2019: 138). 이처럼 중도입국자녀가 공교육으로의 진입이 지체되는 이유는 부족한 한국어 실력이며, 학업 중단 주된 이유도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조사되었다(배상률 2016: 35-37).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학교생활의 위축감을 불러오고 학습 격차로도 이어지며, 심리적으로는 정체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는 진로와 진학의 어려움¹⁰⁾으로 연결된다. 언어 문제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 ‘체류자격 문제’가 중도입국자녀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항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서덕희 외 2016). 이처럼 중도입국자녀는 한국 입국 후 언어 문제, 학교 부적응 상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하고 교차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배경에서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비재학·비취업상태(NEET)에 있으면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는 중도입국자녀의 비율이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자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시설이나 레인보

년도 23,94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9 다문화교육지원계획. 교육부, 2019, p.2 참조

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2019, p.489

10) 다문화가정 학생의 상급 학교로의 취학률은 비다문화 학생에 비해 낮고 학업중단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중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131호 2018년 11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배상률,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p.4 참조

우스쿨, 다문화대안학교 등은 중도입국자녀에게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¹¹⁾ 이는 중도입국자녀가 적응 교육 지원 제공과 참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참여 동기나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오히려 무기력한 주변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3.2.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지원 현황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정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되어 교육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부처를 중심으로 중도입국자녀 대상 교육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3.2.1. 여성가족부의 지원정책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이주배경청소년¹²⁾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관련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 기관이다. 설립 초기에는 북한이탈, 다문화 청소년 위주의 지원을 펼쳤으나, 이후 중도입국,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사업 활동을

11)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2019, p.593-594 참조

12) 이주배경청소년은 이주배경청소년재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부모 중 1인이나 청소년 본인이 한국 회 지역 출신이거나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다양한 이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 및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 등으로 세부 분류된다.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도 운영 중인데 2019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9개 기관, 92학급의 청소년에게 다문화 감수성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입국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과 진로지원 프로그램인 ‘무지개job아라’는 대표적인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운영 사례이다.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레인보우스쿨’은 직영/위탁 모두 상·하반기와 여름·겨울 연4회 운영되는데 위탁 기관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25개소인 것으로 2019 활동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무지개job아라’ 경우에는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진로 교육을 제공해 한국 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진로 교육 기초 프로그램으로써 프로그램 수수료 후에는 진로 교육 심화 프로그램인 ‘내-일을 잡아라’로 연계되어 직업 활동을 위한 실전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지개job아라’는 2014년부터 매년 전국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내-일을 잡아라’는 다양한 현장 직업교육을 제공하면서 직업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대비교육, 진로소양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현재 전국 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¹³⁾ 무지개청소년센터는 중도입국자녀의 초기 적응과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표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이 전국 25개소에서 연간 1,400명 규모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중도입국자녀의 교육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사후관리나 모국어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개별 대응의 어려움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유진이 2020: 28).

13) [http://www.rainbowyouth.or.kr/page/page19\(2020-12-23](http://www.rainbowyouth.or.kr/page/page19(2020-12-23) 접속)

<표 1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다문화교육 현황>

사업	프로그램	교육 내용
입국초기 지원사업	레인보우스쿨	입국초기 한국 사회 적응 지원, 수준별 한국어교육, 특기적성교육
	무지개job아라	단계별·맞춤형 진로교육, 중급 한국어, 실용 한국어 교육
	내-일을 잡아라	직업교육, 직업교육 한국어 교육
지역정착 사업	통합 상담·사례 관리	다국어 심리 검사, 통역자원봉사 활용한 상담, 교육, 체류 등의 맞춤형 정보 제공
	마음돋보기, Job돋보기	문화적 이질감 및 부적응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전문상담사와 이중언어가 가능한 보조진행자로 구성
	멘토링	기초학습 및 한국어 지원, 정서적 안정, 생활 적응 지원
	통·통·통 캠프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공감능력 향상
다수자 인식개선 사업	다가감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세계시민의식 제고
연수 및 개발사업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가 교육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다수자 인식 제고 및 지원 전문가 양성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 2019사업활동보고서에서 정리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서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회원으로 명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크게 두 영역이다. 가족·부모 교육 및 상

담 등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지원이다.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지원은 한국 생활 지원을 위한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자녀생활 방문교육, 언어발달과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은 다문화가족, 특히 대부분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아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 다문화가정자녀 대상의 경우도 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한 경우가 많아 중도입국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교육 현황>

프로그램	교육내용
한국어교육	수준별 정규 한국어, 심화과정(특별한)운영
통역·번역	센터별 1-4개 언어로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관계 증진을 위한 상담
언어발달 지원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만12세 이하 자녀 생활서비스 제공
이중언어 환경조성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교육 제공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정보¹⁴⁾에서 정리

3.2.2. 교육부의 지원정책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

14)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3.do (2020-12-23) 접속,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앙관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도 불린다.

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본격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교육부는 매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15’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과 행복권을 보장하는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2020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지원은 운영 대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생을 위한 지원의 주요 핵심은 학교 교육 준비지원, 언어와 학습지원과 진로와 정서 지원 영역이다. 확대된 징검다리 과정은 중도입국자녀의 학교 생활 조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에서 정식 운영되고 중학교에서는 시범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언어와 학습지원에는 ‘한국어 학급’이 있다. 학교 내에 설치된 특별학급인 ‘한국어학급’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교육과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에 우선 지정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지는 않는다. ‘한국어학급’이 실시 학교의 중도입국자녀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인근 학교의 한국어 학급 또는 지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와 한국어교육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입국 초기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대학생 멘토링 제도도 실행한다. 중도입국자녀의 학습, 숙제 지도, 고민 상담 등을 도와주는 멘토링은 입국 초기 중도입국자녀의 모국어 멘토링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자녀는 중학교 과학, 수학 교과와 주요 개념과 어휘를 쉽게 설명한 교재를 제공한다. 진로 교육 및 정서 지원의 영역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이중언어 학습 장려를 위해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한 후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한다. 음원 실행, 상호작용적 활동, 학습

15) 교육부의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명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2006년 처음 수립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으로부터 시작하여 2008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2012년에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변경되었다. 2016년부터는 학교와 연계된 모든 구성원들이 다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력 관리 등의 기능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효율적인 이중언어 학습을 지원한다.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귀화 한국인 중 우수 인재를 선정한 진로멘토링도 운영한다. 한국어 이외에 다양한 언어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지를 개발하여 중도입국자녀의 정서 검사를 지원하면서 정서 지원 접근성을 제 고 하였다. 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의 학교와 관련한 내용으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다문화 정책학교에서 모든 학생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¹⁶⁾과 ‘한국어 학급’ 을 운영하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에 따른 교육부의 중도입국자녀 대상 정책은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학습 전반의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한국어교육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나이 어린 자녀의 초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청소년기가 많은 중도입국자녀는 중·고등학교로까지 연결되면서 언어발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중도입국자녀의 특수한 언어적 발달 상황을 고려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이나 모국어 관련 교육 지원은 미흡하다. 모국어멘토링이나 이중언어 교재 앱의 경우는 이전의 다문화교육 지원보다 중도입국자녀에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공교육 안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활용되고 정착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6) 다문화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과 더불어 정부 부처에서 통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이해, 반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업무 협약 체결 보도자료, 2015-05-22, p.7 참조

<표 3 교육부의 중도입국자녀 대상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

대상	지원사업	지원내용
학생	학교교육 준비	확대된 징검다리과정(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프로그램)
	언어·학습	맞춤형 한국어교육, 기초학력 지원(대학생 멘토링, 교과 보조교재 보급)
	진로, 정서	진로교육(이중언어 강점 개발), 정서지원(정서 검사)
학부모	학부모 참여기회 확대	다문화관련 교육 프로그램 활동 참여
	정보제공	안내책자 제공
교원	학교환경 조성	교원(현직, 예비)의 다문화교육
	교원 자율연구	다문화학생 진로교육 실천과제 공모
지역 사회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운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지역사회	지원 네트워크 구축, 공교육 진입 절차 지원

출처: 2020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서 정리

3.3.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지원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3.3.1. 다문화교육 지원 기관의 부족

중도입국자녀의 이주 경험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자녀와는 다르

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증가하는 중도입국자녀의 현황을 생각할 때 ‘레인보우스쿨’의 전국 25개소는 양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에서의 초기 적응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많은 중도입국자녀는 계속되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학업과 진로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 다문화가정, 나아가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자녀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다. 중도입국자녀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들의 전국 지역사회로의 전입도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입국자녀의 특수성을 배려한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시설의 전국적인 확장이 필요하다.¹⁷⁾

3.3.2. 모국어교육 지원의 부족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다양하게 발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로써 한국어 능력은 중도입국자녀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한국어로의 입국 전 이미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주요한 요인인 모국어 능력은 계속된 지원 없이 자녀의 장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모국어교육 지원은 정서적인 차원과 실용적인 차원 모두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다문화교육 기관에서 교육 대상자인 중도입국자녀와의 원활한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지원에서 모국어 통역 지원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모국어 교육 지원은 한국 사회가 이중언어 능력을 중도입국자녀의 개별적 강점으로 인식하고 성장시키려는 적극적인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지원의 과정과

17) 한국폴리텍대수고등학교, 인천 한누리학교 등과 같은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성공적인 대안학교들도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 홍미영: 다음 세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다문화정책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p.65 참조

내용 모두에서 중도입국자녀의 모국어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이들의 학습 전반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한국 사회로의 통합 욕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3.3.3.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부족

인구학적으로 증가하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은 이들을 일반 가정 자녀와 분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남게 될 위험이 크다. 일반적이 지 않은 시설에서 일반가정 자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만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다문화가정자녀의 정서적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자녀의 다문화 인식에도 부정적이다. 중도입국자녀가 같은 지역, 학교에 있지만 일반가정 자녀와의 접촉도 상호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합도 없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청소년기의 중도입국자녀가 느끼는 부정적 위축감을 교육이 상쇄해주지 않고 배가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은 이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들이 일반 청소년과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4.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개선 방안 제언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나은 다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호문화

교육의 관점을 통해 개선된 방안을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4.1. 다중언어학습 기회 제공으로

상호문화교육에서 언어다양성은 핵심 주제이다. 더불어 이러한 언어다양성을 존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학습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의 언어다양성은 이미 일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의 다중언어학습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은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한 교육 방향이다. 다양한 언어를 접하고 배울 수 기회를 통해 중도입국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일반가정 자녀 등의 학습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부터 다른 민족의 언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언어적 경험이 확장되는 것이다(유립평의회 2007: 5). 이를 통해 참여자 모두는 사회 안의 언어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호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중도입국자녀에는 모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학습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으로 한국 사회로의 통합 의지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일반가정 자녀에게는 몇몇 언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의 편향성을 넘어서서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진 외국어 학습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 안에 내재된 위계적 외국어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계기가 된다. 청소년들에게 다문화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학교와 지역의 시민단체, 청소년수련관 등¹⁸⁾을 다중언어 학습 시간의 제공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학교와 이들 교육기관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정규 과정 등을 통해 다중언어 학습 기회를 편성하고 가능한 다양한 언어학습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

18)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19, p.165 참조

다. 영어와 같은 주요 언어 외에 다양한 소수 외국어 학습 시간을 편성하는 교육기관에는 교육부의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기관은 다양한 언어 교육이 가능한 다문화 이중언어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형 주체자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도입국자녀를 통합의 단순 대상자로만 강조한 교육 지원은 이들 스스로의 심리적 위축감과 무력감을 내면화할 위험이 있다. 중도입국자녀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특히 후기 청소년기가 많은 한국의 중도입국자녀는 자신들이 참여하는 교육 전반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나이이다. 대학생 멘토링과 같은 외부 도움도 좋지만 이런 일방향의 지원은 참여 자녀의 주체적 성장에는 아쉬움을 남긴다. 다양한 이주 배경의 중도입국자녀가 자신들을 지원하는 선생님, 교육기관 등에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개선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다문화교육의 상호작용은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중도입국자녀가 지역사회의 일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지역 교육기관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하거나 참여한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 프로그램을 직·간접으로 진행하면서 중도입국자녀는 다문화교육의 수동적 대상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나아가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는 스스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관리 능력을 함양하면서 동시에 교육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 주체적 역량을 발전시키게 된다.

4.3. 교육기관을 상호문화적 만남의 장으로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학교와 무지개청소년센터 등과 같은 다문화교육 지원센터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가정자녀들만을 위한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들의 문화를 지배문화로 인식하지 않고 타자의 문화 없이 자신들의 문화도 생명력을 지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김석수 2011: 345). 다문화교육 기관들은 바로 이러한 인식 확장과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중도입국자녀만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또래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세계관의 확장을 경험하는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지개청소년센터 등과 같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기관이 대상의 제한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곳곳의 청소년문화센터 등과 협력해 열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중도입국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가 만나는 곳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갈등 상황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 이런 만남의 장으로서 교육기관은 참여자 모두에게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천적인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문화역량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된다. 모두에게 열린 다문화교육 기관이 어떤 형식적 제한 없이 자문화중심주의를 넘고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교육 현장이 될 때 비로소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이 성공하는 것이다.

5. 나가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는 한국에서 중도입국자녀는 소수이지만 매우 특수한 이주 배경의 집단이다. 이들의 특수한 환경을 배려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성적으로 살펴볼 부분도 있다.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여전히 한국어와 한국문화로의 일방적인 통합을 강조하면서, 많은 중도입국자녀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자질과 역량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교육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적 문제들을 다중언어 교육 지원과 교육과정 전반에서 주체적 참여자로 성장시키는 지원으로 개선하는 것은 이들에게 일반가정 자녀와 같이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교육기관을 상호문화적 만남의 장으로 전환하는 개선 방안을 실천한다면 중도입국자녀는 또래의 청소년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언어적·사회적·문화적 상호이해와 존중의 경험을 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비로소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현장이다.

참고문헌

- 권순희(2020). 중도입국 학생의 언어 교육과 교육 격차, <독서연구> 56권 0호, 한국독서학회. 161쪽~192쪽.
- 김상무(2010). 독일의 상호문화정책이 한국 다문화정책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상연구> 제24권 제3호. 65쪽~89쪽.
- 김석수(2011).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카톨릭철학>제17호. 327쪽~354쪽.
- 김선미, 광노경(2013). 상호문화교육방식 연구 -문화수업에서의 적

- 용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98권 0호. 87쪽~116쪽.
- 김소형, 홍영균(2018).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 교육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레인보우스쿨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제3권 제2호 통권 제8호. 31쪽~66쪽.
- 김효정, 조규필(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정 연구, <다문화와 인간> 대구카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Vol.7 No.1·No.2. 59쪽~103쪽.
- 마르틴 압살라 프렛세이 지음. 장한업 역(2010). 유럽의 상호문화 교육. 한울.
- 덩징야·진미정(2019). 한국출생 및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8쪽~38쪽.
- 류영철(2016).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효율적 방안, <다문화와 평화> 10권1호. 72쪽~102쪽.
- 손영화, 박봉수(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제21-1호. 75쪽~102쪽.
- 신성록(2016). 학령기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와 비자제도 개선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399쪽~419쪽.
- 양계민(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생활 및 적응실태, 한국가족사회 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1호. 33쪽~46쪽.
- 오성배 외(2013).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3-03.
- 오성배·박희훈(2018).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사례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6권 제1호. 71쪽~92쪽.
- 이경희(2011). 다문화사회 교육의 두 관점-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 교육, <다문화교육> 제2권 1호. 37쪽~55쪽.
- (2011).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1호. 111쪽~131쪽.

- 이명희 외(2017). 다문화예비학교의 역할과 개선과제 -한국어 강사의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23-4호. 409쪽~432쪽.
- 이민경 · 이수정(2013). 이주 가정 자녀 정책 해외 사례 분석:방향성과 실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 1호. 144쪽~177쪽.
- 이병준 · 한현우(2016).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문화연구> 제11권 제6호. 1쪽~24쪽.
- 이효인(2015). 중도입국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전남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8권 0호. 307쪽~331쪽.
- 장한엽(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교육과학사
- (2017).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지침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27권 제1호. 199쪽~222쪽.
 - (2018). 20세기 ‘상호문화 담론들’에 대한 비교 고찰, <비교교육연구> 제28권 제3호. 265쪽~289쪽.
- 정영근(2007). ‘사이’의 세기와 상호문화교육,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2권 제1호. 257쪽~272쪽.
- 정영근 · 한영란(2006). 다문화사회 학교와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교육연구>. 1쪽~18쪽.
- 조혜영 외(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5쪽~224쪽.
- 최대회(2014). 중도입국청소년 정체성 연구를 위한 일고찰, <다문화와 인간> Vol. 3, No. 2. 133쪽~165쪽.
- (2016). 사회통합 구상으로서의 다문화, 초문화, 상호문화, <대한정치학보> 24권 2호. 59쪽~63쪽.
- Auernheimer, G(2012). *Einführung in die interkulturelle Pädagogik*, WBG.

<보고서 및 자료>

- 김정숙(20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2016). 중도입국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덕희 외(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신윤정 외(2018).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포용적 다문화 정책 방안: 이주 배경 아동의 발생·성장 환경 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7-01, 정책보고서 2018-21.
- 유럽평의회(2007).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 2010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0.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국무총리실·관계부처합동, 2010.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안)(2018~2022), 여성가족부, 2018.
- 다문화 정책 토론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 2019.
- 2015년 다문화이해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업무 협약 체결, 교육부 보도자료
- 2016~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교육부.
-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2019.
- 2018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여성가족부, 2019.
- 2019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교육부, 2019. 08.
- 2019 사업활동보고서,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세계 강화를 위한 지역자원 연계방안,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2019.

UNESCO,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UNESCO, 2006.

2008 Learning and teaching intercultural competences, in:White paper on intercultural dialog, Council of Europe.

<웹사이트>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교육과학기술부(www.moe.go.kr)

법무부(www.moj.go.kr)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www.kwdi.re.kr)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www.rainbowyouth.or.kr)

필자소개

성명: 이수자

소속: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강사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우편번호] 61186

전화번호: 010-6793-3233

전자우편: suja98@hanmail.net

투고일: 2021. 1. 17 / 심사일: 2021. 1. 20 / 심사완료일: 2021. 2. 18